

2021년 서울시 보건직 공중보건&보건행정 총평

1. 공중보건

단원	문항수	출제율
1. 공중보건 총론	4	20%
2. 역학과 보건통계	5	25%
3. 질병관리	1	5%
4. 환경보건	3	15%
5. 산업보건	1	5%
6. 식품위생과 보건영양	1	5%
7. 인구보건과 모자보건	2	10%
8. 학교보건과 보건교육	0	0
9. 노인`정신보건	1	5%
10. 보건행정`사회보장	2	10%

2021년 서울시 보건직 공중보건학 문제는 그동안의 시험과 유사한 중간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유형이나 생소한 내용의 문제가 없었으며 과거 출제비중이 높은 범위 내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공중보건에서 필수암기사항으로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환경관련 기준치의 문제는 없었으며 기준 항목 정도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계산문제 역시 실제 계산내용이 아닌 공식정도를 묻는 문제였으며 특별한 함정도 없었습니다.

강의중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강의를 베이스로 기본기를 다진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보건행정

단원	문항수	출제율
1.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	4	20%
2.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	1	5%
3. 보건의료조직	1	5%
4. 사회보장	4	20%
5. 재무행정과 보건경제	2	10%
6. 정책이론과 기획이론	2	10%
7. 조직 및 인사행정	4	20%
8. 보건사업	2	10%

2021년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는 그동안의 시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답이 보이는 수준의 문제보다는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이론에 접목시켜야 하는 문제가 3~4문항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 있었으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응용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A)형 9번 문제의 경우 선택지 중 이론에서 다루지지 않은 보기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수업중 강조한 문제푸는 요령을 제대로 적용해 보았다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돈을 관리하여 상한액을 환급해줄 수 있는 기간은 심평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임을 생각하였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행정 역시 강의중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

본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베이스로 기본을 다진 수험생이라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험을 치러낸 수험생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